

가톨릭 청년의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종교대처의 조절효과 검증 - 천주교 광주대교구를 중심으로 -

조발그니 · 김병욱

이 연구는 가톨릭 청년의 종교성과, 종교대처, 안녕감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 이유가 조절변수인 종교대처의 작용이라고 보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천주교 광주대교구 내 13개 성당의 청년 252명을 대상으로 종교성 척도, 종교대처 척도, 주관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 사회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상관분석, 동시 회귀분석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대처의 세 가지 양식은 종교성, 안녕감과 다른 상관을 보였다. 종교대처 양식 중 공협형과 책임진가형은 종교성 하위 요소인 신경에 대한 동의, 경건성, 교회 출석, 조직 활동, 종교 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종교성의 하위 요소 중 조직 활동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적 예언변수였고,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교회 출석이었다. 셋째, 공협형은 종교성의 모든 하위요소에 대해서 유의한 정적 영향력을 보인 반면, 자기주도형은 종교성의 하위요소 중 신경에 대한 동의와 경건성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력을 보였다. 넷째, 종교대처 양식 중 공협형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적예언변수로 나타났다. 다섯째,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종교대처 양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공협형과 자기주도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변수로서 작용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볼 때, 공협형의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종교성이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종교기관은 청년들을 위한 활동이나 교육을 계획할 때 종교성의 증진 뿐 아니라, 청년들의 종교대처 방식에 대한 관심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청년, 종교성,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 종교대처

조발그니 교육학박사, 프랑스 체류 중, vincentcho@naver.com (교신저자)

김병욱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bukim2349@hanmail.net

1. 서론

청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이다. 청년은 부모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는 어린이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어른도 아니어서 불안정과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장휘숙, 2004). 또한 청년기는 학교에서 직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며, 독립적인 생활태도를 형성하고 결혼과 가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발달 과업이 주어지는 때이기도 하다(김현철, 2003; 윤진·최정훈, 1989). 특히 자본의 성장은 두드러지는데 실업은 확산되는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최형익, 2004)에서, 청년의 안녕감은 위협을 받고 있다. 대학 졸업생 중 비정규직 취업비율까지 고려할 때 80%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안녕감(well-being)이란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느낌으로서 행복이나 정신건강이다. 이는 키이즈와 로페즈(Keyes & Lopez, 2002)가 내린 세 가지의 정의 곧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을 포괄하는 정의라 할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은 생활 사건에 대한 즉각적 또는 장기적인 정서적·인지적 반응을 의미하고,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적 수준에서 행동적, 정서적 측면의 기능을 의미하며, 사회적 안녕감은 사회 안에서의 자신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기능을 말한다.

한편, 종교사회학자들은 종교가 긴장을 해소하고, 박탈과 좌절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소속감을 부여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이원규, 2005).

그런데 선행연구들은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종교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연구한 23개의 경험적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종교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논문이 53%,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는 47%뿐이었다는 버긴(Bergin, 1983)의 연구가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런데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나온 이유는 종교성이나 안녕감의 다차원적 구성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했거나 척도가 빈약했기 때문이다. 즉 많은 연구들이 안녕감을 행복, 생활만족, 특별한 삶의 영역에서의 만족 여부와 같은 단일 항목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Chamberlain & Zika, 1988). 또한 기존의 종교성 측정 연구들은 종교 유무, 종파 및 종교집회 참석 여부, 종교 교리에 대한 지식과 같은 단순 지표로 종교성을 측정하여 종교의 복잡한 현상을 제대로 측정하였다 할 수 없다(Cohen, 2002). 한편, 문제가 연구 대상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신 인식은 안녕감에 도움이 되었지만 성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쇠텐바우어 등(Schottenbauer, Dougan, Rodrigu ez, Arnkoff, Glass & Lasalle, 2006)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이처럼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척도나 연구 대상의 문제라기보다 종교성과 안녕감 사이에 어떤 변수가 조절변수로 작용한 탓으로 볼 수도 있다. 예언변수와 결과변수 간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가 일관성을 갖지 못하였거나 기대와 달리 약할 경우 어떤 제3의 변수가 예언변수와 결과변수 간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변화시킨다고 예상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종교성과 안녕감이 일관된 관계를 지니지 못한 이유를 종교대처에 따른 차이의 문제로 보고 종교성과 안녕감 사이에 종교대처를 제 3의 조절변수로 예상하여 이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종교대처란 스트레스나 위기의 상황에서 개인이 취하는 종교적 신념이나 행동을 말한다(반신환, 2006). 종교대처의 측정은 개인이 스트레스나 위기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할 때 얼마나 종교와 관련짓는가에 초점을 둔다(Pargament, Koenig & Perez, 2000). 또한 종교는 일상생활 보다 위기의 상황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교대처는 스트레스의 상황에서 종교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볼 때 적절하다.

종교대처는 3가지로 분류되는데, 자기주도형(Self-direction style)은 신이 인간에게 자유와 책임을 부여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때 신을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는 유형이다. 책임전가형(Deferring style)은 신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기대하고 문제 해결 책임을 신에게 맡기고 자신은 수동적으로 남아있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공협형(Collaborative style)은 문제해결의 책임이 본인과 신에게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에 처했을 때 신의 뜻을 찾으며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유형이다(제석봉, 2002; Pargament, Kennell, Hathaway, Grevengoed, Newman & Jones, 1988).

지금까지 종교를 가진 신앙인이 느끼는 안녕감에 대해 다양한 개념적 변수와 접근방법들이 동원되어 왔다(김동기, 2007). 그리고 종교대처는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조절변수이다(Granqvist, 2005). 그러나 국내에서는 종교대처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경험적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종교성, 종교대처 그리고 안녕감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지적한대로 종교성과 안녕감을 다차원적으로 개념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이 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 이유를 종교대처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종교교육이나 종교 활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비추어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종교성, 종교대처, 안녕감은 어떤 관계인가? 둘째, 청년의 종교대처는 종교성과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년의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종교대처는 조절변수로 작용하는가?

2. 이론적 배경

1) 종교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종교는 건강 활동, 개인적 삶의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종교공동체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고, 성행위, 가족생활에 대한 윤리를 제공하여,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종교공동체가 자아존중감과 자기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이는 종교가 종교 자아가치를 증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동료애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적 몰입은 자아존중감이나 효능감, 자아증진, 정체감, 내외적 통제감, 자아실현, 그리고 능력감 등 심리적 자원을 증진시키는 더 적극적인 기능을 한다(Ellison, 1998).

흑인에게 종교 활동은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Levin & Taylor, 1998). 쾨니그(Koenig, 김광기·강은덕·김상현·신매숙, 2004에서 재인용)는 종교가 곤혹스런 생애사건을 극복하는 데 사회적 지원의 원천으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종교는 긍정적 정서와 삶의 의미 사이에서 매개효과로 작용한다(Hicks & King, 2007).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지낼 때 예배 참석과 같은 공적 종교 활동과 기도와 같은 사적 종교 활동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고, 문제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한다(한내창, 2002). 엘리슨 등(Ellison, Boardman, Williams & Jackson, 2001)의 연구에서는 교회 출석과 기도가 안녕감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정신건강을 예언 변수로 삼을 때 종교 성향과 종교의 사회 인지적 접근은 안녕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Dezutter, Soenens & Hutsebaut, 2006).

2) 종교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종교가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다. 프루이저

(Pruyser, 한내창, 2002에서 재인용)는 종교가 개인 및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챔버레인과 지카(Chamberlain & Zika, 1988)는 종교 활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효과는 있으나 삶의 의미가 매개 역할을 하여 종교성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종교 활동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 스타이니츠(Steinitz, 1980)가 노인 1493명을 대상으로 종교성이 안녕감, 삶의 만족을 얼마나 예언하는지 살펴본 결과, 오직 교회 출석만이 안녕감과 관련이 있었는데, 그것도 종교성보다는 육체적 건강 여부와 더 관련이 있고, 특히 백인여성에게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트너 등(Gartner, Larson & Allen, 1991)은 18개의 논문 중 6개만이 종교와 자아존중감 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 정신건강 척도에 따라 종교와 정신건강 간 관계의 성격이 달라지며, 심한 우울증, 심리적 안녕감, 자살 의도와 같은 변수들과 종교는 정적 상관을 보이지만, 권위주의, 자아실현과 같은 변수들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불안감, 자아존중감, 성도착증, 편견, 정신질환, 지능과 교육 정도 등은 종교와 혼합된 결과를 보였다.

3) 종교대처와 안녕감의 관계

파거먼트 등(Pargament et al., 1988)은 종교대처를 자기주도형, 책임전가형, 공협형 세 가지 양식으로 나누었다. 이후 파거먼트 등(Pargament, Koenig & Perez, 2000)은 종교대처 간이형 검사를 제작하고 긍정적, 부정적 종교대처로 요인을 분류하는 등 종교대처 척도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다. 쇠텐바우어 등(Schottenbauer, Rodriguez, Glass & Arnkoff, 2006)은 지난 10년 동안 종교대처는 정신병과 심리치료와 더불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을 리뷰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제석봉(2002) 역시 최근 종교대처와 안녕감의 관계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첫째, 스트레스나 위기가 안녕감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일상적인 차원에 머물러 심각한 스트레스나 위기 상황에서 종교대처 유형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심각한 스트레스나 위기에 처했을 때 종교 성향과 같은 일반적인 종교성보다 구체적인 종교적 대처 방법이 결과를 예언하는데 훨씬 정확하기 때문이다. 셋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종교대처 유형이고, 종교대처 유형이 종교성과 안녕감 사이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타웨이와 파거먼트(Hathaway & Pargament, 1990)는 종교성보다는 종교대처가 안녕감에서 적절한 종교성의 요소라고 주장한다. 특히 종교를 가진 신앙인에게 종교대처는 삶의 부정적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Szweczyk & Weinmuller, 2006). 나아가 파거먼트 등(Pargament, Smith, Koenig & Perez, 1998)은 종교대처는 건강이나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수와도 관련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를 종교와 연관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파거먼트 등(Pargament et al., 1998; 2000)은 위기 상황에서 종교대처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클라호마 폭탄테러를 직, 간접적으로 체험한 이들을 대상으로 종교대처와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긍정적으로 종교대처를 하는 이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적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종교대처와 여타 변수들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리스도교적 바탕 위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이를 타종교에도 적용하기 위해 칸과 와스톤(Khan & Waston, 2006)은 이슬람교 신자인 파키스탄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에게 긍정적 종교대처는 높은 중

교적 관심이나 종교 성향과 관련이 있고, 부정적 종교대처는 모든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적 증상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4) 조절변수로서 종교대처

많은 연구들은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 활동, 사회적 지원, 긍정주의, 희망, 목적, 삶의 의미, 내적 통제와 같은 것을 가능한 조절변수로서 제안한다(Cohen, 2002). 그 이유는 먼저 종교성과 안녕감이 연구결과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Granqvist, 2005; Koenig, McCullough & Larson, 2001; Levin & Taylor, 1998)은 종교성과 안녕감 사이에 가능한 조절변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종교대처는 다른 어떤 변수보다도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종교대처 중 공협형 대처는 내재적 종교 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언변수였고(Hathaway & Pargament, 1990; Khan & Waston, 2006; 제석봉, 1995), 종교적 태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Newman & Pargament, 1990). 파커먼트 등(Pargament et al., 1998)이 밝혔듯이, 종교대처는 종교성향과 함께 스트레스, 불행한 사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같은 주요 삶의 문제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 특히, 종교대처가 종교성과 안녕감 사이에 조절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 내재적 종교 성향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종교를 더 많이 이용한다. 내재적 종교 성향은 종교와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Newman & Pargament, 1990). 즉 종교성과 종교대처가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종교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문제를 종교적 문제해결양식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올포트와 로스(Allport & Ross, 1967)에 의하면 외재적 성향의 사람들은 종교를 여러 방면에 수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재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신앙을 그 자체로서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긍정적 종교대처 유형을 선택하는 사람이 부정적 종교적 대처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보다 불안이나 우울이 낮고, 죽음에 직면해도 공포가 적으며, 사별과 같은 상실을 경험해도 슬픔을 잘 극복한다(Pargament et al., 1998). 그리고 긍정적 종교대처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행복감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Lesile & Jones, 2000). 즉 종교대처의 유형이 종교성과 상호작용하여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종교의식 조사(한국갤럽, 2005)에서 나타난 대로, 한국인이 가장 호소하는 종교기능은 마음의 평안에 대한 추구이다. 자신의 문제를 종교적인 문제로 승화하거나 혹은 그것을 종교적인 문제와 연관하여 생각하고 자신의 편안을 신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한국인의 종교 의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종교대처가 조절변수의 역할을 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천주교 신자인 청년 252명(남자 109명[43.3%], 여자 143명[56.7%])이다. 평균 나이는 25.3세였다.

2) 측정도구

가. 종교성

이 연구에서 뜻하는 종교성은 킹과 헌트(King & Hunt, 1975)의 측정 도구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전의 다차원적인 종교성 척도들이 체계적인 경험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종교성 차원에 관한 여타 학자들의 제안을 고찰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의 척

도 중 신경에 대한 동의²⁾ 경건성³⁾, 교회 출석, 조직 활동, 행위의 정도⁴⁾를 번안하여 종교성을 측정하였다.

척도 원저자가 산출한 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80이었다. 이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신경에 대한 동의 .92, 경건성 .86, 교회 출석 .65, 조직 활동 .88, 종교생활 .83, 종교성 전체 .94이었다.

나. 종교대처

이 연구에서는 종교대처를 측정하기 위해 파거먼트 등(Pargament et al., 1988)이 개발한 종교 문제해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공협형, 자기주도형, 책임전가형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요인은 문제해결과정의 구성요소인 문제의 정의, 대안들의 생성, 해결방안의 선택, 문제의 재정의, 자기감정 통제를 측정하는 2개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파거먼트 등(Pargament et al., 1998)의 내적 일치도가 높은 문항 18개로 구성된 축소판을 번안하여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파거먼트 등(Pargament et al., 1998)이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공협형 .97, 자기주도형 .98, 책임전가형 .97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파거먼트 등(Pargament, Koenig & Perez, 2000)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였던 것처럼 18개 문항을 탐색적 요인분석 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은 공협형의 문항으로, 요인 2는 책임전가형 문항으로, 그리고 요인 3은 자기주도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개 요인의 고유치는 모두 1이상(각각 3.92, 3.64, 3.58)이었고, 3개 요인 모두 구성문항에 대한 요인 부하량은 .40이상이었다. 3개 요인 모두 1개의 주성분임이 확인되

2) 영어로는 'creedal assent'라고 한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예를 들면 신이 세상을 창조하였다와 같은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한다.

3) 경건성은 인생의 결정에서 신을 뜻을 물어본다와 같은 신실성(fidelity)을 의미한다.

4) 연구자들은 행위의 정도를 종교생활로 명명하였다. 문항이 주로 종교생활과 연관되어 종교생활이라 정의한다.

어 공협형, 책임전가형, 자기주도형의 3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공협형 .88, 책임전가형 .81, 자기주도형 .87이었고 전체는 .80이었다.

다. 안녕감

이 연구에서의 안녕감은 키이즈와 로페즈(Keyes & Lopez, 2002)의 구분을 따랐다. 이들은 안녕감을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 주관적 안녕감이란 개개인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를 의미한다(Diener & Emmons, 1984). 둘째,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은 삶에 대한 전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인 주관적 안녕감과 달리,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심리적 기능의 합을 말한다(Ryff, 1989). 셋째, 사회적 안녕감(social well-being)은 사회 안에 속해 있는 자신의 환경과 기능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Keyes, 1998).

① 주관적 안녕감

이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인 삶의 만족도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파버와 디너(Pavot & Diener, 1993)가 개발한 5개 문항의 삶의 만족도 척도(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원저자들은 신뢰도 계수를 .87로 보고하였고, 이 연구에서 산출한 신뢰도 계수는 .80이었다.

② 심리적 안녕감

이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측정은 리프(Ryff, 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류정희·이명자(2007)가 번안한 것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PWBS는 6개의 요인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개 요인은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통제,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이다. 류정희와 이명

자(2007)의 연구에서 문항-총점 상관계수, 요인부하량, 요인적절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자이수용 6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7문항, 자율성 5문항, 환경에 대한 통제 4문항, 삶의 목적 3문항, 개인적 성장 3문항 등 총 28문항을 선별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③ 사회적 안녕감

이 연구에서 사회적 안녕감의 측정은 키이즈(Keyes,1998)가 개발한 사회적 안녕감 척도(Social Well-Being: SWB)를 류정희와 이명자(2007)가 번안한 척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SWB 척도는 5개의 요인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의 요인은 사회적 응집력, 사회적 실현, 사회적 통합, 사회적 기여, 사회적 수용이다. 류정희·이명자(2007)의 연구에서는 문항-총점 상관계수, 요인부하량, 요인적절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응집력 4문항, 사회적 실현 3문항, 사회적 통합 5문항, 사회적 수용 3문항 등 총 15문항을 선별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대상으로부터 산출한 척도의 신뢰도계수는 .82였다.

3) 연구절차와 자료 분석 자료수집 절차

2007년 10월 중에 천주교 광주대교구 내 성당 중 청년을 위한 미사가 있는 13개 성당의 청년 295명⁵⁾을 대상으로 지필검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필검사는 미사 후에 다른 장소에 모여 성당에서 청

5) 2006년 천주교 광주대 교구통계자료에 따르면 (http://www.kjatholic.or.kr/kj_board/servlet/KBoard?table Name=repds), 20-29세가 49,650명이었다. 또 미사에 참석하는 이들은 이 수 중 10%에 불과한 4,562명이었다. 한편 천주교 광주대교구 내 광주시내 본당은 113개 본당 중 53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20-29세의 청년의 수는 27,24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 미사에 참석하는 수(실제 종교활동을 하는 수)는 2,645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광주시내 천주교 청년신자를 대상으로 청년의 종교성, 안녕감, 그리고 종교대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교구 통계를 참조하여 13개 본당을 선정하였다. 처음 연구대상은 295명이었고, 실제 연구대상은 252명으로 광주시내 미사에 참석하는 청년 수에 10%에 해당한다.

년사목을 담당하는 신부가 검사방법을 설명하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시간은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응답이 불성실한 43부를 제외한 252명의 설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과 AMOS 4.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기술통계량을 산출한 다음,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종교성과 안녕감의 하위요소들에 대한 종교대처 양식의 영향력을 밝히기 위하여 동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교성과 안녕감 사이에 종교대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측정모형과 이론모형을 통해서 모형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방정식 모형이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각 모형의 적합도는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of Error Approximation)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홍세희, 2000).

4. 연구결과

1) 종교성, 종교대처 및 안녕감의 상관

종교성, 종교대처 및 안녕감의 상관은 <표 1>과 같다. 종교성의 하위요인들은 종교대처 중 공협형과 책임전가형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주도형과는 교회 출석을 제외하고 부적 상관을 보였다. 종교성이 높을수록 공협형과 책임전가형의 수준도 높고, 자기주도형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파거먼트 등(Pargament et al., 1988)이 주장한대로 자기주도형은 종교성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대처의 하위요소 중 공협형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책임전가형은 주관적 안

녕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주도형은 주관적 안녕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공협형의 경우, 주관적 안녕감은 물론,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의 하위요소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즉 공협형의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측정변수 간 상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②	.61***										
③	.45***	.54***									
④	.44***	.47***	.54***								
⑤	.56***	.58***	.53***	.70***							
⑥	.55***	.64***	.48***	.48***	.56***						
⑦	.32***	.42***	.28***	.26***	.33***	.59***					
⑧	-.30***	-.28***	-.07	-.16*	-.13*	-.30***	-.02				
⑨	.19**	.17**	.25***	.29***	.23***	.22**	.26***	.15*			
⑩	.21**	.19**	.27***	.24***	.25***	.18**	-.03	-.24***	.34***		
⑪	.30***	.21**	.23***	.26***	.27***	.22**	.01	-.24***	.19**	.70***	
M	3.97	3.37	3.34	3.16	2.76	3.20	2.50	2.27	2.83	3.52	3.56
SD	.82	.89	.88	.94	.76	.82	.78	.81	.80	.49	.54

*p < .05; **p < .01; ***p < .001

주 ① 신경에 대한 동의 ② 경건성 ③ 교회 출석 ④ 조직 활동 ⑤ 종교생활 ⑥ 공협형 ⑦ 책임전가형 ⑧ 자기주도형 ⑨ 주관적 안녕감 ⑩ 심리적 안녕감 ⑪ 사회적 안녕감

2) 안녕감에 대한 종교성의 회귀분석 결과

종교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시회귀분석을 하였다. 안녕감에 대한 종교성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종교성의 하위요소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R²)은 9.5~11.6% 정도이었다. 종교성은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성의 하위요소 중 조직 활동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적예언변수였고,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교회 출석이었다.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신경에 대한 동의였다.

<표 2> 안녕감에 대한 종교성의 영향력

예언변수	종속변수	β	t	R ²	F
신경에 대한 동의		.057	0.706		
경건성		-.033	-0.389		
교회 출석	주관적 안녕감	.131	1.668	.098	5.367***
조직 활동		.213	2.401*		
종교 활동		-.005	-0.051		
신경에 대한 동의		.078	0.965		
경건성		-.032	-0.378		
교회 출석	심리적 안녕감	.163	2.064*	.095	5.168***
조직 활동		.074	0.836		
종교 활동		.090	0.931		
신경에 대한 동의		.215	2.695**		
경건성		-.037	-0.435		
교회 출석	사회적 안녕감	.062	0.801	.116	6.429***
조직 활동		.097	1.104		
종교 활동		.071	0.742		

*p < .05; **p < .01; ***p < .001

3) 종교성에 대한 종교대처의 회귀분석결과

종교대처가 종교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시회귀분석을 하였다. 종교성에 대한 종교대처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종교대처의 하위요소가 종교성에 미치는 영향(R²)은 23~42%정도이었다. 종교대처의 하위요소 중 공협형과 자기주도형이 신경에 대한 동의와 경건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협형은 정적 영향을, 자기주도형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출석과 조직 활동, 종교생활에 대해 공협형만이 유의한 예언변수였다. 공협형의 대처양식을 사용할수록 교회 출석이 잦고, 조직 활동을 많이 하며, 종교생활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책임전가형은 종교성의 하위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자기주도형은 종교성의 기초가 되는 신경에 대한 동의나 경건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을 배제한 문제 해결방식이 개인의 종교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종교성에 대한 종교대처의 영향력

예언변수	종속변수	β	t	R ²	F
공협형		.479	6.870***		
책임전가형	신경에 대한 동의	.038	0.576	.318	38.504***
자기주도형		-.149	-2.652**		
공협형		.557	8.712***		
책임전가형	경건성	.088	1.443	.424	60.968***
자기주도형		-.108	-2.082*		
공협형		.512	6.917***		
책임전가형	교회 출석	-.021	-0.299	.231	24.826***
자기주도형		.081	1.348		
공협형		.497	6.712***		
책임전가형	조직 활동	-.037	-0.529	.230	24.704***
자기주도형		-.012	-0.208		
공협형		.578	8.285***		
책임전가형	종교생활	-.009	-0.134	.315	37.963***
자기주도형		-.045	0.801		

*p < .05; **p < .01; ***p < .001

4) 안녕감에 대한 종교대처의 회귀분석결과

종교대처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시회귀분석을 실시

<표 4> 안녕감에 대한 종교대처의 영향력

예언변수	종속변수	β	t	R ²	F
공협형		.191	2.409*		
책임전가형	주관적 안녕감	.152	2.011*	.113	10.531***
자기주도형		.211	3.286**		
공협형		.221	2.743**		
책임전가형	심리적 안녕감	-.158	-2.061*	.087	7.828***
자기주도형		-.176	-2.708**		
공협형		.251	3.130**		
책임전가형	사회적 안녕감	-.145	-1.897	.095	8.714***
자기주도형		-.171	-2.632**		

*p < .05; **p < .01; ***p < .001

하였다. 안녕감에 대한 종교대처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종교대처의 하위변수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R²)은 8.7~11.3%였다. 종교대

치는 안녕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공협형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정적에 언변수로 나타났다. 책임전가형은 주관적 안녕감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심리적 안녕감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형 역시 주관적 안녕감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안녕감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종교대처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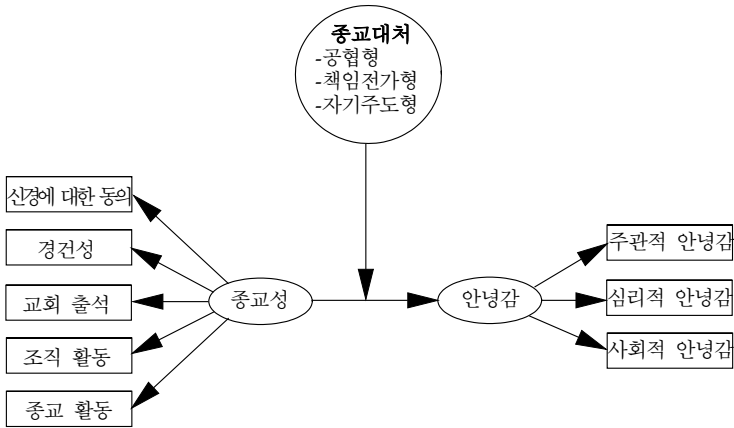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종교대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자가 연구를 할 때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제3의 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경우를 조절효과라고 한다. 조절변인이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의 방향과 강도에 영향을 주는 질적(성, 인종, 계층) 혹은 양적(처치의 수준)변인이다. 예로서 $A*B$ 가 있다고 한다면 A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B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A의 효과를 B가 조절(moderate)해 준다.⁶⁾ 그리고 수학적으로는 A와 B의 상호작용효과로 나타난다(이순목·이도형, 1996).

조절변수가 연속점수일 때 조절효과는 제1독립변수와 제2독립변수 각각을 Z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한다.⁷⁾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제1변수와 제2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넣고 연구모형과 회살표를 추가하는 경합모형 간 카이제곱 차이를 통해서 통계적 유의여부를 확인한다. 이 때 카이제곱 분포에서 유의도 수준 .05의 임계치는 자유도 1일 때 3.84이므로 두 모형 간 카이제곱 차이가 적어도 4를 넘어야 한다. 위와 같

6) 한편 A가 B의 조절변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건 수학적으로는 A와 B의 상호작용 효과로 나타난다. 단지 내용적 해석을 통해서 어느 것이 어떤 것의 효과를 조절하는 변수인지를 논의 할 수 있을 뿐이다(이순목·이도형, 1996).

7) 연속변수일 때 제1독립변수와 제2독립변수를 Z점수로 전환하는 이유는 이 둘 변수 간의 상호작용 항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표준점수인 Z로 변환하는 것이다.

은 사실에 입각하여 종교대처 방식들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림 1>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종교대처의 조절효과 모형

6)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공협형의 조절효과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공협형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카이제곱의 차이가 4.23으로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공협형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공협형은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작용을 하였다. 공협형은 종교성 및 안녕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종교성과 안녕감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공협형은 종교성과 상호작용하여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공협형은 종교성에 영향을 미쳐 안녕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다. 종교적인 사람이 문제해결을 하는데서 신의 뜻을 찾으며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삶의 질이나 정신건강도 높고 행복해 질 수 있다는 말이다.

<표 5>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공협형의 조절효과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908.975	161	.74	.78	.136
경합모형	913.207	162	.74	.78	.136
차이	4.23	1			

7)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책임전가형의 조절효과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책임전가형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책임전가형의 조절효과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978.832	161	.69	.73	.142
경합모형	980.144	162	.69	.73	.142
차이	1.31	1			

카이제곱의 차이가 1.31로 나타나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책임전가형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책임전가형은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즉 문제의 책임을 신에게 맡기는 것은 종교성과 상호작용을 하여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8)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형의 조절효과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형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카이제곱의 차이가 13.39로 나타나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형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표 7>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형의 조절효과

모형	χ^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948.569	161	.73	.77	.140
경합모형	961.959	162	.73	.77	.140
차이	13.39	1			

자기주도형은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에서 조절변수로서 작용 하였다. 자기주도형은 종교성 및 안녕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종교성과 안녕감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자기주도형은 공협형과 같이 종교성과 상호작용하여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공협형이 종교성과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반대로 자기주도형은 종교성이 낮게 되고 종교성과 상호작용하여 안녕감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의 존재를 배제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안녕감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가 일관되지 않는 이유를 종교대처 양식에 따른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종교대처 양식을 조절변수로 상정하여 탐색하였다. 또한 종교성과 안녕감을 다차원적 관점에서 개념화하여 천주교 청년신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대처 하위요소와 종교성 간 상관 및 종교대처 하위요소와 안녕감 간의 상관은 종교대처 하위요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종교대처의 하위요소 중 공협형과 책임전가형은 종교성의 하위요소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

다. 그러나 자기주도형은 교회 출석을 제외한 모든 종교성의 하위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자기주도형의 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성의 수준 역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협형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여, 문제를 신과 함께 풀어가려고 노력할수록 그만큼 행복하고 안녕감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기주도형과 책임전가형은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보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자기주도형과 책임전가형은 안녕감과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안녕감과 부적관계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종교성의 하위요소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조직 활동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적예언변수였고,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교회 출석이었다. 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신경에 대한 동의였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할 때 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사와 같은 교회 안에서 이뤄지는 신심행위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때 개인 삶의 심리적인 질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교리나 교회의 가르침을 믿고 따를 때 사회 안에서 하나 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종교대처 하위요소가 종교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협형은 종교성의 모든 하위요소 즉 신경에 대한 동의, 경건성, 교회 출석, 조직 활동, 그리고 종교생활에 대해서 정적 영향력을 보였고 책임전가형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자기주도형은 종교성의 하위요소 중 신경에 대한 동의와 경건성에서 부적 영향력을 다른 요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협형은 종교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주도형과 책임전가형은 종교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오히려 종교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종교대처 하위요소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공협형은 안녕감의 하위요소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정적 예언변수로 나타났다. 책임전가형은 주관적 안녕감에는 정적영향을 미치지만 심리적 안녕감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형 역시 주관적 안녕감에는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안녕감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종교대처에 따라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시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의 결과, 공협형과 자기주도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변수로서 작용하였다. 그러나 공협형의 경우 종교성과 상호작용하여 안녕감의 수준을 높이지만 자기주도형의 경우 종교성과 상호작용하여 안녕감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울러(Fowler)에 의하면, 청년의 종교발달은 3단계(종합적 인습적 신앙)와 4단계(개별적, 반성적 신앙)에 속하는데 이 시기에 청년들은 신앙적 도취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회의적 위축을 느낀다. 따라서 청년들은 이 시기에 신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고,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신앙의 스타일이 구축된다(김동기, 2003). 따라서 이 시기에 종교대처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교기관은 이 시기에 청년들이 올바른 종교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고, 신이 인간의 문제를 멀리서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또한 청년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그 고민을 풀어가기 위해 현실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종교의 기능 중 하나가 위로와 안녕감을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억압을 정당화하는 장치다. 그러나 동시에 억압으로부터의 피난처이기도 하다. 따라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하였다(Wheen, 정영목 역, 2001). 즉 마르크스는 종교의 양면적인 측면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다. 이 연구의 결과도 그의 종교관에서 크

게 벗어나지 않았다. 종교대처에 따라 삶의 질 곧 안녕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종교가 청년의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교성과 안녕감의 관계를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종교성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종교대처 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낸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 대상이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한정되어 있어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앞으로 청년을 위한 종교교육을 실시할 때 그리고 종교기관이 청년의 문제에 개입할 때, 어떠한 부분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그럼에도 전국적인 단위에서 유증표본을 통한 청년들의 종교성, 종교대처 그리고 안녕감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후속연구도 필요하다. 더불어 질적 연구를 통해 연구 대상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어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광기·강은덕·김상현·신매숙. 2004. “종교성이 청소년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경기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16: 179-199.
- 김동기. 2003. 『종교심리학』. 학지사.
- 김동기. 2007. “행복과 종교적 태도의 개념관계 모형들에 대한 비교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47-365.
- 김현철. 2003. “일본 청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의 변화-시스템으로서의 통합에서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주.” 『청소년학연구』 10(2): 127-154.
- 류정희·이명자. 2007.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 그 구조 및 주관적 안녕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4(1): 55-77.

- 반신환. 2006. “대학생의 종교와 종교적 대처: 내담자의 종교.” 『한국 기독교 상담학회지』 11: 139-155.
- 윤진·최정훈. 1989. “청년기의 정신건강문제와 그 대처행동양식-고교 및 대학생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 16-35.
- 이순묵·이도형. 1996.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조절변수효과의 검증 및 이론단계적 회귀분석.” 『교육평가연구』 9(2): 95-126.
- 이원규. 2005. 『종교사회학의 이해』. 나남출판.
-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박영사.
- 제석봉. 2002. “종교적 대처와 정신건강.” 『종교연구』 26: 25-42.
- 최형익. 2004. “한국의 사회구조와 청년 주체의 위기.” 『문학과학』 37: 69-85.
- 한국갤럽. 2005.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www.gallup.co.kr>.
- 한내창. 2002. “종교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6(3): 157-182.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원(F. Wheen). 2001. 『마르크스 평전』. 정영목 역. 푸른숲.
- Allport, G. W. & J. M. Ross.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32-43.
- Bergin, A. E. 1983.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 Critical Reevaluation and Meta-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4: 17-184.
- Chamberlain, K. & S. Zika. 1988. “Religiosity, Life Meaning and Wellbeing Some Relationships in a Sample of Wome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7(3): 411-420.
- Cohen, A. B. 2002. “The Importance of Spirituality in Well-being for

- Jews and Christian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3: 287-310.
- Dezutter, J., Soenens, B. & D. Hutsebaut. 2006.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A Further Exploration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Religious Behaviors vs. Religious Attitud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 807-818.
- Diener, E. & Emmons.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Ellison, C. G. 1998. "Introduction to Symposium: Religion,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4): 692-694.
- Ellison, C. G., Boardman, J. D., Williams, D. R. & J. S. Jackson. 2001. "Religious Involvement, Stress, Mental Health: Findings from the 1995 Detroit area Study." *Social Forces*. 80(1): 215-249.
- Gartner, J., Larson, D. B. & G. D. Allen. 1991. "Religious Commitment and Mental Health: A Review of the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19: 6-25.
- Granqvist, P. 2005. "Building a Bridge between Attachment and Religious Coping: Tests of Moderators and Mediator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8(1): 35-47.
- Hathaway, W. L. & K. I. Pargament. 1990. "Intrinsic Religiousness, Religious Coping, and Psychosocial Competence: A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9(4): 423-441.
- Hicks, J. A. & L. A. King. 2007. "Religious Commitment and Positive Mood as Information about Meaning in 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1-15.
- Keyes, C. L. 1998. "Social Well-being."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1(2): 121-140.
- Keyes, C. L. M. & S. J. Lopez. 2002. "Toward a Science of Mental Health: Positive Directions in Diagnosis and Interventions." pp.

- 45-59 in Snyder, C. 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Khan, Z. H., & P. J. Waston. 2006. "Construction of the Pakistani Religious Coping Practices Scale: Correlations with Religious Coping, Religious Orientation, and Reactions to Stress among Muslim University Stud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6(2): 101-112.
- King, M. B. & R. Hunt. 1975. "Measuring the Religious Variables: National Replic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4: 13-22.
- Koenig, H. G., Mccullough, M. E. & D. B. Larson. 2001. *Handbook of Religion and Healt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eslie, J. F. & S. H. Jones. 2000. "Religiosity and happiness: During adolescence, young adulthood, and later life."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19(3): 254-258.
- Levin, S. J. & R. J. Taylor. 1998. "Panel analyses of Religious Involvement and Well-being in African Americans: Contemporaneous vs. Longitudinal."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4): 695-709.
- Newman, J. S. & K. I. Pargament. 1990. "The role of Religion in the Problem-Solving Proces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31(4): 390-404.
- Pavot, W. & E. Diener. 1993. "Review of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164-172.
- Pargament, K. I., Kennell, J., Hathaway, W., Grevengoed, N., Newman, J. & W. Jones. 1988. "Religion and the Problem-Solving Process: The Styles of Coping."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7(1): 90-104.
- Pargament, K. I., Smith, B. W., Koenig, H. G. & L. Perez. 1998. "Patterns of Positive and Negative Religious Coping with Major Life Stressor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4): 710-724.

- Pargament, K. I., Koenig, H. G. & L. M. Perez. 2000. "The Many Methods of Religious Coping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RCOP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6(4): 519-543.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chottenbauer, M. A., Dougan, B. k., Rodriguez, B. F., Arnkoff, D. B., Glass, C. R., & V. H. Lasalle. 2006. "Attachment and affective revolution following a stressful event: General and religious coping as possible mediator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9(5): 448-471.
- Schottenbauer, M. A., Rodriguez, B. F., Glass, C. R., & D. B. Arnkoff. 2006. "Religious coping Research and Contemporary Personality theory: An Exploration of Endler's(1997) Integrative Personality Theor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ical Society*. 97: 499-519.
- Steinitz, L. Y. 1980. "Religiosity, Well-Being, and Weltanschauung among the Elderl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9(1): 60-67.
- Szewczyk, L. S. & E. B. Weinmuller. 2006. "Religious Aspects of coping with Stress among Adolescent from Families with alcohol problem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9(4): 389-400.

조발그니는 광주가톨릭대학교를 졸업하고 천주교 신부 서품을 받았다.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프랑스에서 해외 사목활동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ZEP)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종교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보다 실증적 자료에 기초를 둔 천주교 종교교육의 현실화에 관심을 두고 있다.

김병욱은 미국 Rochester 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학위를 받고, 전남대학교 사범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육사회학과 평생교육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저서로 「교육사회학」(2007, 학지사)이 있다. 감성과 감정의 교육, 체험학습, 비교교육과 미래학적 차원에서 한국 교육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